종합서평

봇물처럼 쏟아진 북한관련서, 문제는 없는가

북한에 대한 총체적 접근으로 통일 밑거름 마련해야

강정구 |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남북정상회담 이후 출판가에는 북한 특수 붐이 일었다. 남북경협과 관련된 책부터 통일방안을 모색한 책까지 최근 출간된 책의 경향은 다양하다. 이들 책이 북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북한의 역사와 구조에 대한 분석력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북한사회를 분석한 깊이 있는 연구서를 기대해 본다.

지난 6월 평양에서 개최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는 '북한 특수' 붐이 일었다. 갑자기 나타난 북한전문가나 통일운동가들이 제 나름대로 정상회담·통일·민족경제 등에 관해 일가견을 가진 듯한 전망과 해석을 피력한다. 이는 출판계도 마찬가지다. 최근 북한관련 서적들이 봇물 터진 듯 쏟아지는 느낌이다.

남북관계와 민족통일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다양하게 펼쳐지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너무 급조된 듯한 북한 및 통일전문가, 갑작스레 쏟아지는 관련 서적들이 북한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역사적인 금자탑이라 할 수 있는 6·15공동선언과 평양회담정신을 훼손해 남북화해와 민족통일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회든지 그 사회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를 태생시킨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역사, 현재 그 사회를 지탱하는 줄기라고 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뻗어나가는 가지에 해당하는 변화를 총체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혜성처럼 등장한 북한전문가들이 과연 이런 체계적인 기초를 바탕으로 북한사회의 이해와 통일문제에 접근하는지 무척 의심스럽다. 또한 이제 남북간의 적대적인 관계를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 및 평화를 바탕으로 자주적인 통일을 일궈야 하는 통일시대의 민족사적 과제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단순히 '연구를 위한 연구'를 뛰어 넘어 통일집짓기의 밑거름이 되는 연구와 방안이 요구된다.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과 통일에 관심을 갖게 된 일반 시민들이 좀더 체계적이고 올바로 북한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최근 출간된 책들을 평가해보고자 한다.

북한에 대한 구조적 분석 아쉬워

우선 최근에 나온 《이제 벤처는 평양이다》(방영철 지음, 김영사), 《평양비즈니스 아이템 100》(윤승재 엮음, 민미디어), 그리고 북한 관광을 위한 가이드북 등은 체계적인 북한 이해에 바탕을 둔 책이기보다 북한 출신 필자들이 특정 영역에 국한해 현상적 사항에 대한 사실과 특성을 나름대로 전달한 것이다. 이 책들은 남북경협이나 관광을 위한 실용서기 때문에 현재 민족 과제인 남북화해와 통일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은 것들이다. 또한 이런 책들은 각 특성과 현상이 일어나게 된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에 대한 분석이 다소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실용적인 필요에 의해 이 책들을 구독하더라도 이 책들에 그치지 말고 역사와 구조에 관한 다른 책들을 함께 읽어야 체계적인 북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 벤처사업이든 소규모 투자나 관광이든 이들 모두는 북한 사람 및 제도와의 상호작용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그러나 현상적인 실용서만으로 이 부분을 채워 줄 수 없다. 구조와 역사에 관한 서적을 통해 북한의 제도와 사람들에 대해 천착해야만 장기적이고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물론 이들 실용서를 통해서도 북한사회의 특성이나 역사성을 단편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익한 점도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다.

최근 북한이해에 도움을 주는 책들이 몇 권 눈에 띈다. 정창현의 《곁에서 본 김정일》(김영사), 서대숙의 《현대 북한의 지도자》(을유문화사), 이숙자 외의 《21세기 북한》(나남출판), 이종석의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역사비평사) 등이다.

이 가운데 《곁에서 본 김정일》은 북한 조선노동당 고위간부로서 곁에서 김정일을 지켜본 신경완의 증언이다. 저자인 정창현이 북한 현대사의 맥락과 접목시키고, 기존 문헌과 대조 및 확인을 거쳐 체계화했다. 김정일과 북한에 대한 온갖 근거없는 우상과 허상을 깨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오늘날 통일시대에 걸맞는 책이다.

서대숙도 일반 독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부터 오늘날 김정일의 과제까지 연대기적으로, 또 포괄적으로 북한사회의 역사적 흐름을 서술하고 있다. 특히 김일성의 무장투쟁, 내전과 통일전쟁으로서의 한국전쟁 등을 객관적으로 보려는 점이 돋보인다. 그러나 핵문제나 미사일문제 등에서는 미국적 시각에 경도된 한계를 드러낸다.

《21세기 북한》은 한국정치학회 여성정치연구위원회 회원이 공동집필한 책으로 북한의 정치·경제·외교·사회·문화·군사·통일·변화 등에 대해 전반적인 변화 과정을 종합적으로 서술했다. 특히 현시점에서 각 영역별 북한현황을 소개하고 변화전망을 나름대로 제시하려고 한 점은 돋보인다. 그러나 필자들 간에 분량부터 서술방식까지 통일성이 부족하거니와 서술만 있고 분석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이 이 책의 흠이다. 또 대부분의 글들이 기존의 보수적 견해에 경도돼 있고, 한·미·일의 공조에 의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 보려는 역지사지의 자세가 부족한 결점을 드러내고 있다. 과연 이런 접근이 민족적 과제인 통일집짓기의 터전 제공에 제대로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종석은 1995년에 출간된 《현대북한의 이해: 사상, 체계, 지도자》(역사비평사)를 재편집하고, 보강하고, 그 사이 변화된 사항을 추가하고, 오늘의 문제의식을 살렸다. 650여면에 이르는 방대한 양이 말하듯 북한사회의 여러 부분을 총망라한 백과사전과 같다. 물론 단순한 가나다식의 서술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문제의식을 기준으로 체계적인 서술과 설명을 곁들여 깊이가 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북한의 변화전망에 대해 가장 관심이 많을텐데, 이 부분을 5부 '북한위기와 변화전망'에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위기와 변화는 정권위기와 붕괴하느냐 않느냐에 초점이 모아졌다. 사회변화는 정권의 수준을 뛰어넘는 것인데 너무 축소시켜 실제 식량난과 경제난 때문에 정권의 의지와 관계없이 진행되는 광범한 변화에 대한 천착이 아쉽다.

통일에 관한 책으로는 김명철의 《김정일의 통일전략》(윤영무 옮김, 살림터)과 구본영의 《인터넷 세대의 통일》(나남출판)이 최근 출간됐다. 김명철은 재일 군사평론가로서 핵문제와 미사일문제 등으로 위기가 도래할 때마다 북한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여 왔고 이런 주장이 미국에도 상당히 알려져 있다. 그의 주장은 단순하다. 남한은 독립주권국가가 아니라 군사작전권도 없는, 미국의 속국 혹은 보호국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김정일의 탁월한 영도하에 조미군사대결에서 미국에 필적할 만한 군사력을 충분히 갖췄으나 궁극적으로 싸우지 않고 승리해 2003~2004년 정도에는 평화적으로 통일된다고 주장한다. 남한과 미국과의 관계를 예속적으로 파악하는 측면은 일말의 타당성이 있지만 북한에 대한 근거 없는 환상을 독자들에게 불어 넣어줄 것 같아 심히 염려스럽다. 흡수통일의 위협에 전전긍긍하는 북한의 모습과 1997년 북한 전체 GNP가 남한의 군사비에 불과한 객관적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의 주장은 허황해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런 허황한 주장에 매료되는 일부 통일운동가들이 있다는 점이다.

허황되고 가벼운 통일상

구본영의 책은 통일에 관해 제기되는 여러 쟁점을 나름대로 포괄적으로 점검·평가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통일논쟁의 전체 그림을 파악하는 데 유익한 길잡이가 된다. 그러나 그의 책에 깔려 있는 기조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를 당연한 것으로 보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에 편입돼야 한다는 '신자유주의 맹신론'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현재 모습은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이고 과거 지향적인 것으로 21세기의 세계화모델에 부합하는 것으로 시급히 대체돼야 한다고 본다. 민족사에 대한 천착이 없는 너무나 가벼운 통일상을 그리고 있어 그의 책에서는 통일다운 통일을 전혀 기대할 수 없다.

북한 핵문제에 관해 러시아 사람들이 발간한 《북한핵 프로그램》(알렉산드르 만소로프 외 엮음, 박명서 외 옮김, 사군자)도 선보였다. 일부를 빼고는 전형적인 미국 시각에 추종하거나 러시아의 대국주의를 저변에 깔고 분석·서술하고 있다. 북한 핵문제를 역지사지로 볼 수 있는 균형 잡힌 분석이 여전히 아쉽다. 핵문제의 핵심은 북한의 생존권을 보장해주고 미국이 맺은 제네바 10·21협정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다. 북미합의 이후의 문제는 미국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북한을 강요한 데 있다.

사회과학적 연구는 객관성이라는 잣대만으로 가늠하기에는 불충분하다. 구체적인 현상에 대한 객관적인 서술을 출발로 삼아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객관성이 현상화될 수밖에 없었던 역사구조적 요인을 분석한 바탕 위에 그 객관적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작업이 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북한의 여러 현상들이 오늘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요인을 중심으로 북한을 접근하는 연구서와 통일을 이루려는 자세를 견지한 연구서들을 기대한다.●